

內經 運氣篇의 標·本·中 개념에 대한 研究

序論	114
本論	114
1. 運氣篇에 나타난 標·本·中의 개념	115
2. 標·本·中의 천문학적 배경	116
1) 天地, 上下와 南面, 北面의 공간 구조	116
2) 主氣와 客氣의 運行	118
3) 〈六微旨大論〉의 初中 개념과 標·本·中의 천문학적 배경	119
3. 運氣學의 根幹이 되는 陰陽五行과 相生相克의 원리	121
1) 陰陽과 五行의 관계	121
2) 運氣學에서 運과 氣의 관계	123
3) 相生과 相克의 관계	124
4. 標·本·中의 의미	125
1) 本의 의미	125
2) 標의 의미	126
3) 中의 의미	126
5. 標·本·中의 상호 관계	127
1) 標本의 관계	127
2) 標中의 관계	128
6. 標·本·中의 변화 규율	129
結論	131
參考文獻	132
Abstract	133

內經 運氣篇의 標·本·中 개념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專攻 白裕相·朴贊國

序論

『黃帝內經』 運氣篇에 나오는 標·本·中의 개념은 六氣와 三陰三陽의 관계 및 三陰과 三陽 간의 表裏관계¹⁾를 규정한 것이다. 標·本·中 서로간의 관계는 經絡·臟腑理論을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서 이미 內經의 여러 篇을 통하여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으며 후대에 와서 傷寒論의 六經病證 등을 설명하는데도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標·本·中의 상호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은 五臟과 六腑 간의 상호 연관성이나 經絡 간의 관계, 또는 傷寒論의 病機 및 그 치료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內經 運氣篇에 기재된 標·本·中의 내용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적으로 運氣學의 理論을 바탕으로 標·本·中의 개념을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運氣學의 기본이 되는 陰陽五行理論과 運氣學의 천문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標·本·中 각각의 개념 및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標·本·中 개념이 가진 본

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臟腑論이나 經絡理論에 있어서의 理論的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本論

運氣篇에 나오는 標·本·中의 개념은 단순히 運氣學의 한 부분으로서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寒暑燥濕風火의 六氣가 三陰三陽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三陰三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며 또한 標와 中이 이른바 表裏 관계로서 서로 대응하면서 經絡과 臟腑의 관계까지 설명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먼저 運氣篇에 나타난 標·本·中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였고 그것의 運氣學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運氣學의 근간이 되는 陰陽五行과 相生相克의 원리를 토대로 標·本·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와 서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標·本·中의 변화규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1) 表裏라는 용어는 運氣篇외의 다른 篇에서 臟腑와 經絡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運氣篇에서는 表裏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고 각각 標와 中으로 표현하고 있다.

1. 運氣篇에 나타난 標·本·中의 개념

運氣學에서 氣는 대체적으로 寒暑燥濕風火의 六氣를 말하는데 그것은 다시 主氣와 客氣로 나뉜다. 主氣는 매년 일정하게 厥陰, 少陰, 少陽, 太陰, 陽明, 太陽의 순서로 나타나며, 客氣도 또한 그 해의 地支에 따라서 시작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나 그 순서는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의 순서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天元紀大論〉에서는 六氣가 本이 되며 이것을 六元이라 한다고 하였다.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²⁾ 是謂六元

여기서 上은 上位 즉, 司天의 자리를 말한다. 위 문장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 地支가 子午가 되는 해에 少陰이 司天의 자리에 오게 되면 熱氣가 萬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에 나타나는 熱氣가 本이 된다. 그리고, 이 熱氣는 萬物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므로 六氣를 달리 六元이라 한 것이다.

六氣가 本인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標는 바로 三陰三陽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六微旨大論〉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少陽之右 陽明治之 陽明之右 太陽治之 太陽之右 厥陰治之 厥陰之右 少陰治之 少陰之右 太陰治之 太陰之右 少陽治之 此所謂氣之標也

2) 이 문장에서 所謂本은 구체적으로 風氣, 熱氣, 濕氣, 火氣, 燥氣, 寒氣의 六氣를 가리킨다.

즉,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의 순서로 客氣가 계속 순환하면서 이어지는데 이때의 三陰三陽을 六氣에 대하여 標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앞에서 말한 六氣의 本이나 여가서의 標, 그리고 다음에 나올 中의 개념이 모두 客氣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客氣는 氣交에 의하여 나타나는 萬物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標·本·中의 개념이 氣의 변화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中에 관해서는 〈六微旨大論〉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 所謂本也 本之下中之見也 見之下 氣之標也 本標不同 氣應異象

예를 들어 설명하면, 客氣인 少陽이 司天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火氣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中으로서 表裏관계³⁾의 厥陰이 나타나니, 本의 아래로 中이 드러나고 그 아래가 氣의 標라고 하였다. 여기서 上中下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위의 高下로서 그 主從 관계를 말한

3) 여기서 表裏관계란 少陰과 太陽, 太陰과 陽明, 厥陰과 少陰의 짝을 말하는 것으로 三陰과 三陽간의 관계이다. 이것은 五臟과 六腑, 經絡의 陰經과 陽經의 관계에서 그 기본을 이루고 있다. 〈素問·太陰陽明論〉에서는 “太陰陽明爲表裏”라 하였으며, 〈素問·評熱病論〉에서도 “巨陽主氣 故先受邪 少陰與其爲表裏也”라 하였다. 한편, 經絡의 表裏관계에 대해서는 〈素問·血氣形志篇〉과 〈靈樞·九鍼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足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足之陰陽也

手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謂手之陰陽也

다고 보아야 한다⁴⁾. 上中下の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標·本·中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다루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本이 되는 六氣는 萬物의 변화를 일으키는 本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三陰三陽의 標로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標本の 가운데에서 다시 三陰三陽의 中이 標와 表裏관계로 짝을 이루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本氣	風氣	熱氣	濕氣	火氣	燥氣	寒氣
中	少陽	太陽	陽明	厥陰	太陰	少陰
標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한편, 標·本·中의 변화 규율에 대하여 <至眞要大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帝曰六氣標本所從不同奈何
岐伯曰氣有從本者 有從標本者 有不從標本者也
帝曰願卒聞之

岐伯曰少陽太陰從本 少陰太陽從本從標 陽明厥陰不從標本 從乎中也 故從本者化生於本 從標本者有標本之化 從中者以中氣爲化也

이것은 客氣가 갈마들며 들어올 때 萬物의 변화가 標·本·中에서 어느 것의 특성을 주로 쫓아서 나타나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疾病의 발생도 역시 이와 같은 從化 규율을 쫓아서 나타난다고 보았다⁵⁾.

4) <天元紀大論>에서 “寒暑燥濕風火 天之陰陽也 三陰三陽上奉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三陰三陽이 위로 六氣를 받든다고 한 것은 三陰三陽이 六氣의 命을 받들어 萬物의 변화를 드러냄을 말한 것이다.

5) <至眞要大論>에서 “百病之氣 有生於本者 有生於標者 有生於中氣者”라 하여 疾病의 발생이 標·本·中의 從化 규율을 쫓아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2. 標·本·中의 천문학적 배경

標·本·中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標·本·中 개념이 어떠한 천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運氣學의 모든 개념들은 실제 우리가 천문기상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정보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運氣學의 내용이 비록 계산적이고 관념적인 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천문기상학적 실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⁶⁾. 따라서 標·本·中의 개념도 실제로 어떠한 천문학적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天地, 上下와 南面, 北面의 공간 구조

우선, 五運六氣學의 기본이 되는 天地, 上下, 南面, 北面 등의 공간 구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主氣와 客氣의 운행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內經 특히 運氣篇에서는 天地의 형상을 무한한 허공 즉 우주 속에 평평한 땅이 자리잡고 있는 모양으로 보았다⁷⁾. 이것은 마치 관찰자가 우주의 밖

6) 運氣學의 내용을 살펴보면, 陰陽五行 이론을 바탕으로 萬物의 변화를 연역적으로 설명해나가는 부분과 자연계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하여 陰陽五行의 관계를 귀납적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해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運과 氣의 관계를 통하여 이미 일정한 변화의 형식이 정해지지만, 현실에서 기상이나 지상의 여러 변화를 관찰하여 이미 정해져있는 運氣의 편차를 조금씩 보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候’라 한다.

7) <五運行大論>에서 天地 上下의 공간 구조에 대하여 다음

에서 天地의 形象을 바라볼 때의 광경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실제로 우리가 天地의 공간 속에 포함되어 평평한 땅 위에 서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광경은 지평선을 중심으로 上下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림 1 땅위에 서서 바라볼 때의 天地의 모습.

이때에 관찰자가 어느 방위를 향하여 보고 서 있는가에 따라서 天地 기운의 多少가 차이 나게 된다.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대칭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는 경우인데 內經에서는 이 경우를 각각 南面과 北面이라고 하였다. 즉, 북극성의 반대쪽이 되는 남쪽을 바라보는 상태를 南面이라 하였고 북극성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는 상태를 北面이라 하였다.

南面을 하게 되면 天氣가 주로 드러나고 北面을 하면 地氣가 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북극성이 천구 상의 정중앙에 위치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한 별들의 운행이 주로 남쪽 하늘에서 나타

과 같이 설명하였다.
帝曰 地之爲下否乎? 岐伯曰 地爲人之下 太虛之中者也 帝曰 憑乎? 岐伯曰 大氣舉之也
즉, 이것은 빈 허공 속에 大地가 떠받쳐 있는 모양을 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주의 모양을 天圓地方이라 하는데 이때의 圓은 바로 빈 허공의 무한한 삼차원 공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方이라 하는 것은 가로, 세로의 넓이로 표현되는 이차원 평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기 때문이다. 별들은 五行의 精氣를 간직하고 그 영향을 지상에 미치게 되므로 별들이 많이 드러나는 남쪽 하늘에서 天氣가 盛하게 되는 것이다⁸⁾. 東西의 天地之氣의 多少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니, 동쪽은 日月을 비롯하여 별들이 升하는 곳이므로 天氣 즉, 陽氣가 盛한 곳이며 서쪽은 반대로 降하는 곳이므로 地氣 즉, 陰氣가 盛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을 실제로 관찰자가 땅위에 서서 南面하였을 때 바라보는 天地의 모습으로 다시 상징화하여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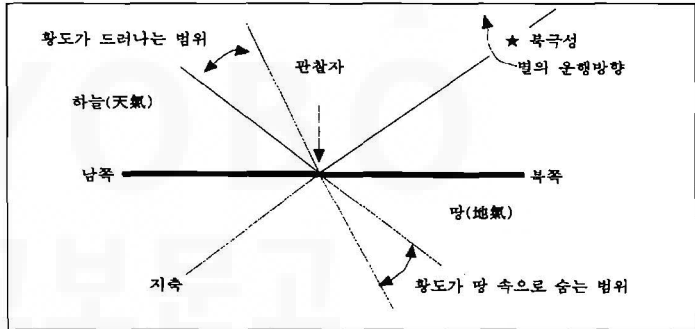


그림 2.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돌아가는 모습

만약, 반대로 北面하였을 때에는 반대의 구도가 나타날 것이다.(그림 3)

8) 황도상의 28宿는 춘하추동의 계절에 따라서 각각 7宿씩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을 《靈樞·衛氣行篇》에서는 “天周二十八宿 而一面七星 四七二十八星”이라 하였다. 이때에 각 7宿에서 나오는 五行의 精氣가 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日月과 五星을 합하여 말하는 七星에 대해서도 《靈樞·九鍼論篇》에서 “七者 星也”라 하여 七鍼에 배속하였는데, 《素問·鍼解篇》에서는 九鍼에 대한 설명 중에서 “七鍼 益精”이라 하여 七星이 精氣와 관련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였다.

2) 主氣와 客氣의 運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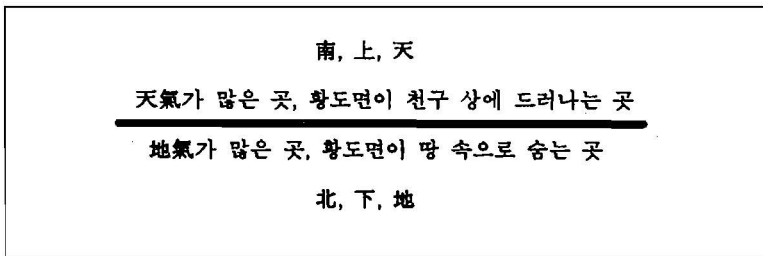


그림 3. 南面했을 때의 天地의 모습

앞에서 설명한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主氣와 客氣의 運行을 살펴보면, 우선 客氣는 우리가 南面한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들어온다. 즉, 南面하여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으로부터 三陰三陽이 돌아 들어와서 정중앙에 南中하게 되는데 이때에 바로 정중앙에 해당하는 기운이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六微旨大論>에서 “少陽

고 지상의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때에 南面하여 정중앙에 해당하는 자리가 바로 “上下有位” 중의 上位에 해당하며, 客氣는 바로 이 上位에 와서야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少陽이 남쪽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한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여기에서 다시 一步가 지

나가면 少陽의 오른쪽에 위치한 陽明이, 南面한 하늘의 정중앙 즉 上位로 들어와서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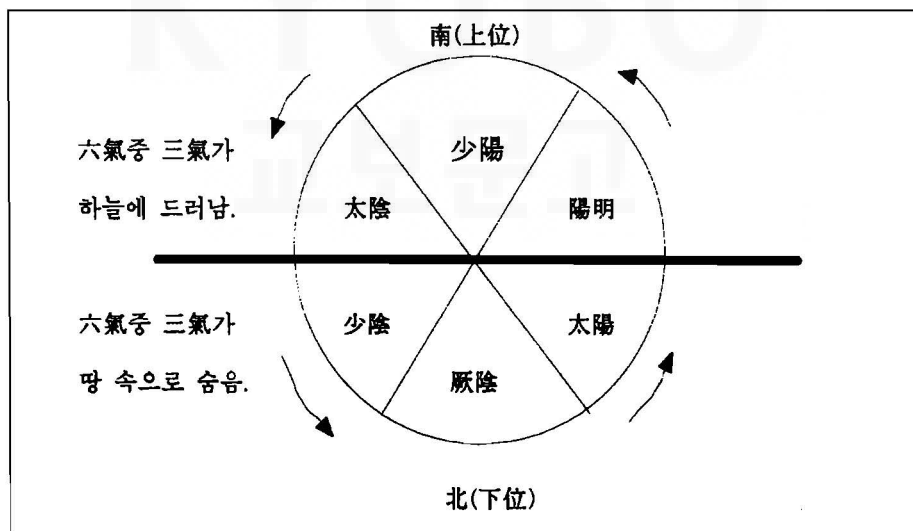


그림 4 客氣의 運行을 나타낸 그림

之右 陽明治之”라고 한 것이 바로 少陽의 오른쪽에 위치한 陽明이 돌아 들어와서 정중앙에 자리잡

9)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夫六氣者 行有次 止有位”라 하였으니, 六氣은 運行에 순차가 있고 그것이 일정한 자리로 갈마들어 들어움을 말한 것이다.

客氣는 일년 동안 六步를 가므로 一步는 一年을 여섯으로 나눈 기간이 된다. 六微旨大論에서 一步가 “六十度而有奇”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¹⁰⁾. 따라서 南中의 자리를 一步의 氣가 통과하는 시간은 약 六十日 정도가 되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지평선을 기준으로 하여 天地를 上下로 나누어 보았을 때 六氣 중 어느 三氣는 항상 上의 天에 드러나 있으며 동시에 다른 三氣는 下의 땅 속에 숨어 있다. 이것은 마치 그림 1에서 북쪽의 황도가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六步 중 三之氣를 司天之氣라 하고¹¹⁾ 終之氣를 在泉之氣라 하여, 司天之氣는 天氣로서 일년 중의 전반기를 통틀어 다스리고 在泉之氣는 일년 중의 후반기를 통틀어 다스리게 된다. 여기서 司天之氣란 司天의 자리에 위치한 氣라는 뜻이고 在泉之氣란 在泉의 자리에 위치한 氣라는 뜻이다. 司天이란 天氣를 부리는 하늘의 군주와 같은 지위이므로 당연히 지평선 위의 하늘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고 在泉이란 地氣를 자리잡게 하는 땅의 군주와 같은 지위이므로 당연히 지평선 아래의 숨은 부분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司天和 在泉의 자리를 上位, 下位 또는 上下로 간단히 부르니, <六微旨大論>에서 “上下有位”라 한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司天和 在泉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마치 군주의 양 옆에 위치하여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하는 가까운 신하에 비유하여 左間, 右間이라 표현하였다¹²⁾.

10) <六微旨大論>에서 “帝曰 善 願聞其步何如? 岐伯曰 所謂步者 六十度而有奇”라 하였다.

11) 三之氣가 司天之氣가 되는 이유는, 일년이 시작하여 初之氣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三之氣가 막 天樞의 경계를 지나 地에서 天으로 나오므로 실제로는 三之氣가 가장 먼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12) <五運行大論>에서 司天, 在泉과 그 左右에 대하여 다음

한편, 主氣는 해마다 일정한 순서로서 客氣의 運行과 반대인 시계방향으로 운행한다¹³⁾. 이것은 황도상의 28宿가, 지상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四時에 따라서 시계방향으로 운행하는 것과 일치한다. 主氣는 해마다 일정하게 春夏秋冬의 四時 순서로 운행하므로 우주의 五行運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五行의 精氣가 근본적으로 황도상의 日月星辰에서 온다고 보았으므로 主氣의 운행방향이 황도상의 28宿의 운행과 서로 같게 나타나는 것이다.

3) <六微旨大論>의 初中 개념과 標·

과 같이 설명하였다.

帝曰 善 論言天地者 萬物之上下 左右者 陰陽之道路 未知其所謂也

岐伯曰 所謂上下者 歲上下 見陰陽之所在也 左右者 諸上見厥陰 左少陰 右太陽 見少陰 左太陽 右厥陰 見太陰 左少陽 右少陰 見少陽 左陽明 右太陰 見陽明 左太陽 右少陽 見太陽 左厥陰 右陽明 所謂面北而命其位 言其見也

帝曰 何謂下

岐伯曰 厥陰在上 則少陽在下 左陽明 右太陰 少陰在上 則陽明在下 左太陽 右少陽 太陰在上 則太陽在下 左厥陰 右陽明 少陽在上 則厥陰在下 左少陰 右太陽 陽明在上 則少陰在下 左太陰 右厥陰 太陽在上 則太陰在下 左少陽 右少陰 所謂面南而命其位 言其見也 上下相遊 寒暑相臨 氣相得則和 不相得則病 여기서 “面北而命其位”라는 것은 마치 임금이 司天의 자리에 앉아서 북쪽을 보면서 좌우의 신하에게 그 자리를 命하는 것을 말하고, “面南而命其位”라는 것은 반대로 임금이 在泉의 자리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좌우의 신하에게 그 자리를 命하는 것과 같다.

13) <素問·六微旨大論>에서 主氣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帝曰 善 願聞地理之應六節 氣位何如?

岐伯曰 顯明之右 君火地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一步 金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木氣治之 復行一步 君火治之

여기서 “右”라는 것을 方約中, 許家松이 <黃帝內經運氣七篇講解>에서 “面南而命其位”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옳은 주장이다. 右란 在泉의 자리에 위치하여 남쪽을 바라본 상황에서 오른편의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主氣의 운행방향은 客氣의 운행방향과는 서로 반대가 된다.

本·中の 천문학적 배경

〈六微旨大論〉에서 언급된 初中 개념을 바탕으로 標·本·中の 천문학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六微旨大論〉에 나오는 初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帝曰 何謂初中? 岐伯曰 初凡三十度而有奇 中氣同法

帝曰 初中何也? 岐伯曰 所以分天地也

帝曰 願卒聞之 岐伯曰 初者 地氣也 中者 天氣也

帝曰 其升降何如? 岐伯曰 氣之升降 天地之更用也

帝曰 願聞其用何如?

岐伯曰 升已而降 降者謂天 降已而升 升者謂地 天氣下降 氣流于地 地氣上升 氣騰于天 故高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

여기서 初는 中氣와 대별되는 것으로 初氣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三十度而有奇라는 일정한 기간을 담당한다.

中氣도 역시 같은 三十度而有奇 동안 드러나는 氣이며, 시간상으로 볼 때 初氣를 쫓아서 따라오는 후반기의 氣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初와 中の 기간을 합하면 바로 客氣나 主氣의 六步 기간과 같아지므로 이 初氣와 中氣는 六步를 각각 둘로 나누어 전반기를 初, 후반기를 中이라 한 것이다¹⁴⁾. 또한, 初는 地氣로서 降을 마치고 위로 올

14) 張介賓은 “一步之數 凡六十日八十七刻半而兩分之 則前半步始于初 是爲初氣 凡三十度而有奇 奇謂四十三刻又四分刻

라가는 氣이며 中은 天氣로서 升을 마치고 아래로 내려오는 氣라고 하였다. 이것은 天氣와 地氣가 서로 升降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天地의 氣交를 말하는 것이다¹⁵⁾.

앞에서 三陰三陽의 客氣가 司天의 자리인 上位에 돌아 들어와서 약 六十日 동안 해당하는 기운이 萬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때 바로 전반부에는 初氣가 약 三十日 동안 지배를 하고 후반부에는 中氣가 약 三十日 동안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初氣가 上升하고 中氣가 下降한다는 것은 初氣와 中氣가 각각 地氣와 天氣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며, 한편으로 客氣가 南中の 정점을 돌아 지나갈 때에 처음에는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나중에는 정점을 지나 내려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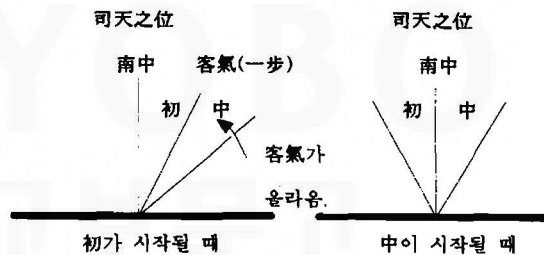


그림 5 初氣와 中氣의 運行

之三也 後半步始于中 是謂中氣 其數如初 故曰同法이라 하여 一步의 전반부가 初氣이고 후반부가 中氣임을 말하였다. 方約中, 許可松도 〈黃帝內經運氣七篇講解〉에서 마찬가지로 주장하였다.

15) 吳崑은 “凡氣先升而後降 故初者地氣 中者天氣라 하였으니, 六氣 중의 一步가 上位에 자리를 잡고 用事를 하여 萬物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기운이 客氣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상승하여 盛해졌다가 정점을 지나 衰하여 하강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상승하는 氣를 地氣로 본 것은 氣交의 관점으로 본 것이며 한편 初氣의 근본이 地氣 즉 五行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六氣가 本이 되고 三陰三陽이 標가 된다고 하였는데 三陰三陽은 각각 다스리는 기간은 六十度而有奇가 된다. 따라서 一步의 標가 다시 初와 中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標는 '標識'의 의미로서 내부의 本性이 겉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시간상 우선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天元紀大論>에서도 客氣의 運行을 설명하면서 少陰에서 시작하여 厥陰으로 끝나는 순서를 "少陰所謂標也 厥陰所謂終也"라 하였으니, 이것이 標가 '시간상 먼저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반면에 中은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던 기운으로서 標의 기운이 다 드러난 이후에 이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六微旨大論>에 나오는 初中 개념은 바로 標·本·中의 관계 중에서 標와 中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즉, 一步의 약 六十日 중에서 標氣가 전반의 약 三十日 동안에 나타나고 속에 있던 中氣가 다시 후반 약 三十日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本氣가 火氣일 때 標인 少陽이 司天의 위치에 들어와 三十日而有奇 동안 萬物을 다스리게 되고 이후로 다시 三十日而有奇 동안에는 이어서 厥陰의 中氣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六微旨大論에서 말한 標·本·中의 上中下 개념은 단순한 공간적 의미가 아니다. 上이란 六氣가 하늘에 있어서 땅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標는 六氣의 기운이 지상에 있는 萬物의 변화를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므로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下는 三陰三陽이 六氣의 命을 아래에서 받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中도 공간상의 가운데가 아니라 初, 標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속의 기운, 또는 시간적으로 뒤에 나타나는 기운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標와 中의 천문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천문·기상 관측이나 여러 가지 物候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標氣와 中氣의 현상으로서 파악되는 것이다¹⁶⁾. 반면에 六氣 자체는 우리가 느끼기만 하고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客氣의 六步를 나타내는 그림도 하늘에서 그 구역이 나뉘어져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문기상적 측면에서 편의상 정해 놓은 관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運氣學의 根幹이 되는 陰陽五行과 相生相克의 원리

陰陽五行理論은 한의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五運六氣學은 陰陽과 五行 理論을 체계적으로 현실에 응용한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標·本·中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運氣學의 근간이 되는 陰陽五行과 그에 따른 相生相克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1) 陰陽과 五行의 관계

陰陽과 五行은 이 세계가 변화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그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宇宙를 하나의 場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런데 그 변화의 양상이 밖으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상에 구체적인 편차를 가지고 드러난

16) <六元正紀大論>에서 "夫六氣者 行有次 止有位 故常以正 月朔日平旦視之 觀其位而知其所在矣"라 하여 천문 관측을 언급하였다. 그 외 二十四節氣 마다 자연계의 변화를 관찰하여 파악하는 物候가 있었다.

것이 陰陽이며 반면에 五行은 그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宇宙의 내재적 원동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四時의 변화를 예로 든다면 각 계절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지 춥거나 더움, 따뜻하거나 시원함, 또는 날의 밝거나 어두움 등 陰陽의 偏差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에서 그 날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 또는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陰陽의 多少나 혹은 그 推移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봄 다음에는 여름, 여름 다음에는 가을,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오게 되는 계절의 순차는 바로 五行運動의 결과이며¹⁷⁾ 이러한 순환은 항상 일정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五行운동이란 어떠한 한계를 가진 場 속에서 그 場이 공간적 독립성과 시간적 영속성을 유지해나갈 목적으로 팽창과 수렴 운동을 반복하게 되는 내부적 변화의 양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五行運動이 木에서 시작하여 水에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水는 精氣를 갈무리하여 다음의 순환을 준비하고 다음에 오는 木은 다시 그 기운을 발산시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다.

즉, 陰陽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現狀세계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氣의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고 五行은 事物의 本質 속에 內在한 原理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理의 세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氣의 현상은 陰陽 편차로 나타나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生長化收藏의 운동은 五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宇宙가 단순한 하나의 場일뿐이라면 그

17) 木火土金水 五行은 단순한 陰陽의 偏差로서 설명할 수 없고,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게 하는 生長化收藏의 운동 원리로서 이해해야 한다.

변화도 간단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宇宙는 그 속에 다시 작은 단위의 존재들로 구성되어 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陰陽과 五行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이 존재들은 스스로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宇宙와는 별개로 독립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宇宙로부터 태어나 宇宙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宇宙 자체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들 小宇宙는 이러한 두가지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존재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사람을 들 수 있다¹⁸⁾. (그림 6)

宇宙와 그 속에 포함된 小宇宙와의 관계를 간단히 도식화하여 나(我)와 남(他)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나는 나대로 五行運動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나가고 나 이외의 모든 주변의 존재들 즉, 남도 그 나름대로 五行運動을 하면서 변화를 지속해 나간다. 그런데 나와 남은 서로간의 교류가 없이는 모두 살아갈 수 없으니 이때 서로간의 교류는 각각의 내부적 五行運動이 밖으로 氣의 세계로 표출되어 陰陽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우주 속에서 각 존재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氣의 교류가 陰陽의 편차로 드러날 때, 이러한 陰陽 현상을 시간 또는 공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나눈 것이 바로 三陰과 三陽이다. 氣의 변화가 陰陽으로부터 다시 셋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宇宙 속에서 각 場들 사이에 일어나는 氣의 교류가 공간적으로는 出入과 그 조절로, 시간적으로는 少·中·太의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宇宙가 균등한 하나의 단위가거나 혹은 변화

18) 內經에서는 자연의 氣의 변화에 거스르는 독립성이 강한 존재를 神機之物이라 하였고 그와 반대로 자연의 氣의 변화에 따라가는 존재를 氣立之物이라 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神氣의 강하고 약함에 있는데 사람이 바로 神氣가 가장 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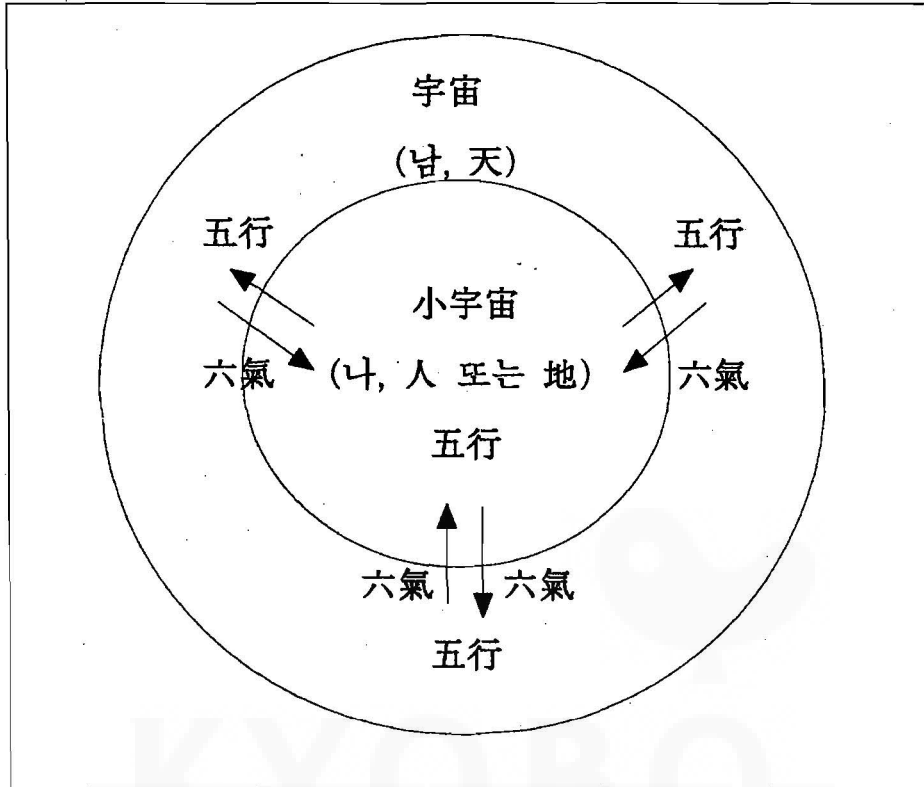


그림 6 宇宙와 小宇宙 간의 관계

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시간이 없는 상태)라면 단 순히 이분법적 성격의 陰陽으로 상태를 표현하면 그만이나, 실제로 宇宙 속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스스로의 독자적인 場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간에 끊임없는 氣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으므로(시간이 흐르는 상태), 이러한 현실을 시간성과 공간성이 내포된 三陰三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運氣學에서 運과 氣의 관계

五運六氣學이란 위에서 말한 我와 他와의 관계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학문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我를 대표 하는 것이 사람 및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인 땅이

고, 他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天이다¹⁹⁾. 다시말하면 運氣學은 天地人이 서로 氣를 주고받는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天地人은 모두 각각의 독립된 세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내부는 五行運動으로 돌아가지만 한편으로 서로간에 주고 받는 氣의 형태는 陰陽의 변화 즉 三陰三陽으로 나타난다.

運氣學에서 運과 氣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五運은 宇宙(天)의 내부적 五行 속성을, 六氣는 宇宙(天)이 밖으로 드러내는 氣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大運은 어느 해에서 一年

19) 我와 他의 교류 속에서 우선 天과 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교류의 결과가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을 통틀어 宇宙가 전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五行 속성을 말하며²⁰⁾, 主運은 一年을 다시 다섯으로 나누어 五行이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갈마들어 들어오는 것이니 즉, 春夏秋冬의 四時變化를 말한다²¹⁾. 客運의 경우에는 해마다 그 시작이 달라지나 그 순서는 五行의 변화를 따르고 있으며 실제 현실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하다. 客運은 大運이나 主運의 편차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五運은 기본적으로 사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치를 표현한 것이므로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四時가 정확하게 일년을 등분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상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줄기가 되는 큰 강령으로서 宇宙의 본성인 만큼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계절로 봄이 와야 할 차례인데 가을이나 겨울이 올 수는 없는 것이다.

五運이 이상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면 六氣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氣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宇宙가 小宇宙에게 또는, 하늘이 땅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이것은 三陰三陽으로 상징되고 구체적으로는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로 표현된다.

主氣는 매년 일정하게 四時 변화에 따라 五行의 순차에 따르기 때문에 우주의 五行運動이 지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²²⁾.

20) 理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五行運動은 기본적으로 相生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것은 春夏秋冬 四時의 순서와 같은데 大運의 순차도 木火土金水의 순서를 따른다. 木年 다음에는 火年, 火年 다음에는 土年이 이어진다.

21) 主運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년을 약 73일 5각씩 다섯으로 나누어 五行이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년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22) 主氣는 五行運動이 발현된 것이므로 원래 五氣로 표현되어야 하나 변화세계의 客氣 즉, 六氣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똑같이 六氣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主氣에는 기운의 過不及 현상이 없다. 반면에 司天과 在泉을 포함하는 客氣는 현실적으로 항상 변하며 風寒暑濕燥火의 六氣가 각각 過不及의 형태로 서로 세력을 다투며 땅위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하늘이 地上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사람이 살아가는 땅을 중심으로 설명해 본다면 하늘 즉, 宇宙는 우리에게 三陰三陽의 六氣로서 영향을 미치고, 한편 땅은 小宇宙로서 근본적으로 五行운동을 하는데 이 두가지가 서로 합쳐져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天元紀大論>에서는 “寒暑燥濕風火 天之陰陽也 三陰三陽上奉之 木火土金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下應之”라고 표현하였다. 결국 宇宙의 本性을 결정하는 五運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六氣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萬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運氣學에서 大運, 司天, 地支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天符, 歲會, 三合 등이 중시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 相生과 相克의 관계

五行운동은 앞에서 말했듯이 事物 안에 내재된 理의 세계에서 시간적 공간적 영속성을 유지해나가는 순환운동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五行은 相生의 순서를 따른다. 이것은 春夏秋冬의 순서와 같으며 어미가 자식을 낳는 相生의 관계이다. 運氣學에서 大運, 主運, 客運 등을 포함하는 五運과 六氣 중의 主氣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陰陽도

23) 실제로 계절마다 나타나는 客氣의 편차는 四時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큰 흐름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宇宙와 그 속에 존재하는 小宇宙는 모두 같은 五行運動을 하고 있으므로 氣의 교류 상에 나타나는 미미한 편차가 오히려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여름과 겨울에는 이미 더위와 추위에 적응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환절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기온차는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서로 相生을 하는데 天干이 陽干과 陰干의 순서로 이어져 太過와 不及이 정해지는 것과 客運에서 五步가 太少로 번갈아 이어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²⁴⁾.

반면에 相克의 관계는 현실세계에서 氣의 편차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亢害承制²⁵⁾ 즉, 勝復관계²⁶⁾가 대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木運이 不及한 해에는 木을 克하는 金氣가 성해지게 되는데 金氣가 성해지면 다시 金을 克하는 火氣가 나타나 金氣를 억누르게 된다. 이때에 金氣가 성할수록 그것을 克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火氣도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相克관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상세계 즉, 氣의 세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변화로서, 相克의 대립관계를 통하여 氣의 太過와 不及이 조절되어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현실에는 완전한 平常은 없고 항상 太過와 不及이 존재하는데 그 太過와 不及의 偏差를 틈타서 서로 간에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나가는 것이다.

요약하면 相生은 理의 세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相克의 氣의 세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두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相生의 관계가 이어지려면 相克 관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木에서 火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木의 기운이 꺾여야 하는데 이때 木을 이기는 金이 들어와서 돕게되며, 반대로 木氣와 金氣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木의 자식인 火가 들어옴으로써 그 갈등 구조가 해소되는 것이다. 결국 宇宙는 相生과 相克의 두가지 운동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해나간다고 볼

24) 任應秋, 運氣學說, 서울, 동문선, 1994, p.100

25) <六微旨大論>에서 “岐伯曰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이라 하였다.

26) 일반적으로 勝復은 司天과 在泉之氣나 客氣에 대한 勝復관계를 의미하며 司天과 在泉도 서로간에 승복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 있다.

4. 標·本·中의 의미

1) 本の 의미

標·本·中에서 本이란 寒暑燥濕風火의 六氣를 말하는데 本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그 바탕이 五行에 있기 때문이다. 즉, 五行은 우주의 본체 속에 내재한 원리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므로 本이라 표현한 것이다. <天元紀大論>에서 “天有五行 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이라 한 것이 바로 六氣가 五行으로부터 나왔음을 표현한 것이다. 六氣를 六元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六氣의 근원이 五行에 있다 하더라도 六氣는 근본적으로 宇宙 또는 天이 小宇宙 또는 地에 영향을 미치는 기운을 말한다. 즉, 六氣는 理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감각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氣의 현상 세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陰陽의 편차로 표현되며 宇宙라는 특수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三陰三陽의 象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五運六氣學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氣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있으니, 標·本·中에서 말하는 六氣(本)는 전적으로 客氣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主氣는 매년 똑같이 나타나며 過不及의 편차 없이 五行의 순서대로 갈 만들기 때문이다. 主氣의 순서는 厥陰, 少陰, 少陽, 太陰, 陽明, 太陽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六氣로 다시 나타내면 風, 暑, 火, 濕, 燥, 寒이 되며 이것은 四時五行의 변화 순서인 木, 火, 土, 金,

水와 일치한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春夏秋冬에 따라 느끼는 바람불고, 덥고, 습하고, 건조하고, 춥게 느끼는 것을 主氣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대체로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四時變化에 있어서 큰 강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가 바뀔 때 따라서 또는 계절이 바뀔 때 따라서 추위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으며, 추위가 심할 수도 있고 더위가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至, 不至 또는 過, 不及의 편차로 나타나는 것이 客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主氣란 사실상 四時五行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氣의 대체적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客氣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다 세밀하게 느끼는 변화무쌍한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五行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主氣는 三陰三陽으로 나타나기보다는 五氣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三陰三陽은 氣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陰陽의 變化現象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主氣를 六氣로 정한 것은 실제하는 현상세계를 표현한 客氣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강령이 되는 春夏秋冬 四時の 변화에 대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나타나는 현실을 客主加臨의 원리로서 설명하기 위하여 主氣를 六氣로 정하여 客氣에 대응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標·本·中에서 本인 六氣는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客氣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客氣는 十二支에 의하여 해마다 그 시작이 바뀌는데 이것은 地支가 땅 기운의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天干은 하늘 기운의 특성을 결정하고 地支는 땅 기운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天은 五行의 원리를 간직한 理의 세계를 가

리키고 地는 陰陽의 변화가 드러나는 氣의 세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天干은 우주 전체의 五行 특성을 결정하는 大運과 관련되며, 地支는 六步에 따라 氣의 편차를 설명하는 客氣의 특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2) 標의 의미

標란 '標識'이란 뜻으로 어떤 事物의 내적 운동이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標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변화 자체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象을 표시해주는 것이다. 단순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表'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즉, 標란 本이 되는 寒暑燥濕風火의 六氣가 현상세계로 드러난 것을 三陰三陽의 象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六氣는 우리가 그 기운을 느낄 수는 있으나 形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관찰을 통하여 그 만물의 변화를 살펴서 象을 취하게 된다²⁷⁾. 예를 들어 우리가 봄이 오는 것을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새가 우는 것 등을 가지고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²⁸⁾. 이처럼 현실에서 변화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 陰陽의 구분이 더욱 확실해진다.

3) 中の 의미

27) <六元正紀大論>에서 "常以正月朔日平旦視之 觀其位而知其所在矣"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六氣 관찰 방법을 말한 것이다.

28) 宇宙의 운동 변화는 현상세계로 드러나게 되는데, 天元紀大論에서 三陰三陽의 標가 위로 本이 되는 六氣를 받든다고 한 것도 六氣의 命을 받들어 땅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의 징후들을 物候라고 한다.

앞에서 客氣가 三陰三陽으로 나타날 때 初와 中으로 나뉘어져 각각 약 三十日 동안 萬物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初는 곧 標를 말하며 中은 標·本·中의 中氣를 말한다. 따라서, 中도 標와 마찬가지로 本인 六氣의 영향이 현상세계에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지, 標와는 그 陰陽의 屬性이 다르며, '中'이라고 이름한 것으로 보아 안으로 잠재되어 있던 기운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사물이 그 기운을 밖으로 발현할 때 그 근원적인 원리를 本이라 하고 외부로 나타나는 現象을 標라고 한다면 중은 標本의 관계 속에 내재된 또다른 속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한다. 이때의 中은 上中下의 단순한 공간적 의미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5. 標·本·中の 상호 관계

1) 標本의 관계

標本の 관계는 六氣와 三陰三陽의 관계인데 구체적으로는 風氣와 厥陰, 熱氣와 少陰, 濕氣와 太陰, 火氣와 少陽, 燥氣와 陽明, 寒氣와 太陽이 짝을 이루고 있다.

寒暑燥濕風火 六氣는 원칙적으로 木火土金水 五行의 변화에 근본하고 있으므로 六氣의 순서도 대체적으로 五行의 순서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五行이 六氣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相火가 나타나게 되니, 相火는 理의 세계의 火인 君火와는 달리 氣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火라고 할 수 있다. <天元紀大論>에서 “君火以明 相火以位”라 하였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君火는 理의 세계에서 그 形이 없이 밝음만을 가지고 있는 火이

며 相火는 氣의 세계에서 그 위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현실적인 火라는 뜻이다.

相火의 역할은 우주 속에서 각각의 여러 존재들 즉, 小宇宙들이 스스로의 場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五行運動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단순히 君火와 같이 理的으로 火의 極性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는 타서 없어져버리고 말 것이다. 水火의 조화 속에서 에너지를 천천히 연소시키는 相火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 相火는 陰에 싸인 상태에서 陰氣를 천천히 연소시켜 나타나는 火인 것이다. 그러므로 木火土까지의 陰化작용이 끝난 후에 형성된 陰氣가 천천히 타 없어지면서 相火가 나타나게 되고 이 相火에 의하여 陽明에 와서 다시 氣가 걸려져서 안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따라서 客氣의 순서가 風氣, 熱氣, 濕氣, 相火, 燥氣, 寒氣로 나타나게 된다.

하늘에서 六氣가 위와 같은 순서로 갈마들면서 盛하고 衰할 때 땅위에서는 萬物이 그에 따라 변화한다. 이때 일어나는 萬物의 변화로부터 象을 취한 것이 바로 三陰三陽이다. 봄과 여름에는 萬物이 자신의 形을 키워나가니 陰化가 일어나는 때이고 가을과 겨울에는 形의 자람이 멈추어지고 陽氣를 축적하는 陽化가 일어나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象에 의하여 六氣의 순서는 三陰三陽이 一陰, 二陰, 三陰, 一陽, 二陽, 三陽 즉,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²⁹⁾의 순으로 짝을 이루게

29) 三陰三陽에서 一陰, 二陰, 三陰, 一陽, 二陽, 三陽에 대한 규정은 運氣篇 외의 다른 여러 편에서 언급되었다. 여기서 一·二·三이란 陰陽 세력의 시간적 消長과 공간적 多少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厥陰이 一陰이 되고 陽明이 二陽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陰의 변화를 形의 변화라 한다면 그 변화의 시작과 끝이 뚜렷하게 하나의 마디가 되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지므로 그러한 국면을 특별히 厥陰이라 한 것이고, 陽의 변화를 氣의 변화로 본다면 厥陰의 의미와는 반대로 그 기운이 가장 성하게 발현되는 시기가 중요해지므로 그것을 陽明이라 한 것이다.

된다³⁰⁾. 이것이 바로 標·本·中에서의 標本관계이다.

만약 天地의 변화를 運動 즉, 힘의 양상으로만 바라보았다면 봄과 여름에는 陽氣가 퍼져나가므로 三陽이 배속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陽氣가 수렴되므로 三陰이 배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標本에서 標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六氣의 命을 받들어 地上에서 나타나는 萬物 변화의 '標識'이므로 物候와 같이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氣의 관점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形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陰化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陽化가 일어나는 것이다.

陰陽이란 氣의 세계의 偏差를 표현하는 用語이다. 따라서 陰陽이란 고정된 事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三陰三陽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고정된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단, 三陰三陽이란 용어 자체에는 '陰陽이 그 세력의 多少, 氣의 出入 그리고 시간적 消長 변화에 따라 셋으로 분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³¹⁾.

主氣의 경우에는 三陰三陽의 순서가 厥陰, 少陰, 少陽, 太陰, 陽明, 太陽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五行의 운행과 일치한다. 이것은 主氣가 원래 客氣에 대응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서 氣의 변화 세계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즉, 主氣에 있어서 相火는 단지 五行 중 火의 속성을 가지고 君

火를 쫓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標中の 관계

標와 中の 관계를 살펴보면 標와 中은 모두 본으로부터 기운이 드러난 것으로 陰陽이 서로 表裏 관계로서 太陽과 少陰, 少陽과 厥陰, 陽明과 太陰의 짝을 이루고 있다.

근본적으로 陰陽의 관계는 陰은 陽으로 변하기 힘들고 陽은 陰으로 변하기 힘들며 서로의 세력을 억제하는 대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標와 中の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억제하는 대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

그러나, 標와 中이 각각 짝을 이루는 이유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협조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太陽와 少陰은 小宇宙가 스스로의 場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極性 즉, 일정한 공간과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太陰와 陽明은 太陽와 少陰이 형성한 場 속에서 오행운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하여 내부의 氣의 升降과 외부의 氣의 出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少陽과 厥陰은 이러한 上下左右內外의 氣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標와 中の 관계는 이와 같이 두가지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客氣가 一步씩 운행을 할 때 처음 약 三十日 동안에는 標의 기운이 드러나다가 그 다음의 약 三十日 동안에는 標의 기운과 陰陽의 성질이 서로 반대되는 中の 기운이 나타나 標의 기운을 조절하여 다음 一步로 옮겨가는 것을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相生,

32) 역대의 주가들은 대체적으로 三陰三陽의 表裏 관계를 六氣의 성질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轉化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太陰과 陽明의 경우 太陰의 본성인 濕이 극성해지면 오히려 燥가 나타나고, 陽明의 본성인 燥가 극성해지면 오히려 濕이 나타나므로 이들 사이에는 轉化의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30) 客氣는 그 해의 地支에 따라서 初之氣가 결정되나 그 六步의 순서는 언제나 일정하다.

31) <天元紀大論>에서 "鬼臾區曰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 三陰三陽也"라 하였다.

相克의 원리를 바탕으로 勝復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³³⁾. 또한, 標와 中은 陰陽은 서로 상반되나 그 역할은 비슷하므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니 이것을 陰陽간의 相生관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標와 中의 관계는 相生과 相克의 원리를 바탕으로 서로 지나친 過不及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標와 中은 모두 六氣가 갖고 있는 陰陽의 속성이 함께 드러난 것이다. 모든 사물은 겉으로 보기에 陰運動과 陽運動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에서 겉과 반대되는 陰運動과 陽運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標의 三陰三陽 순서가 陰化와 陽化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標와 中의 관계는 一步마다 陰陽이 함께 나타나면서 本인 六氣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성질을 모두 표현한 것이다³⁴⁾.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 陰陽運動을 해나갈 때 陽運動이 계속 진행되어 그 운동을 그치고 나서 다시 陰運動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사물의 한 단면을 보고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현실에서 모든 사물은 그 내부의 운동이 어느 하나의 특성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陽運動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陰運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陽運動 또는 陰運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우리가 陰陽 속성의 어느 한쪽으로 인식할 뿐이다.

33) 勝復은 대체적으로 五行의 相克 관계로 나타나는 데 이것이 標中의 관계보다 더욱 치열한 대립관계라고 할 수 있다. 陰陽의 대립보다는 五行 운행상의 相克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34) 예를 들어 <素問·脈解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月別配屬은 天地四時의 변화 속에서 陰과 陽의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표현한 것이며 우리 몸에서 經絡의 流走 순서도 陰陽運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標와 中의 관계를 標本의 관계와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標本 개념은 우주의 五行운동에 의하여 생겨난 六氣가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三陰三陽의 象으로 표현한 것이고 中이란 相生과 相克의 원리를 바탕으로 標本의 관계를 조절하여 보조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中氣는 運氣學上으로 標本관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6. 標·本·中의 변화 규율

從本, 從標, 從中에서 從의 의미는 萬物의 변화가 標·本·中의 특성을 좇아서 나타나게 됨을 뜻한다.

從本이란 주로 六氣의 특성을 좇아서 변화가 일어남을 말하는데³⁵⁾ 六氣는 다시 오행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결국 五行의 성질을 좇는다고 할 수 있다. 즉, 從本은 가장 기본적인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상세계에서 드러나는 三陰三陽의 특성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五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太陰과 少陽이 다스리는 때에 從本하게 되는데, 濕과 火는 形과 氣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운이므로³⁶⁾ 氣의 현상세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두가지 차원인 形과 氣 특성을 좇아서 변화가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太陰은 陰化의 작용이 거의 다 이루어져 形이 가장 커져버린 상태에서 주로 濕氣의 작용에 의하여 나타

35) “從本者 化生於本”이라 하였으니 변화가 전적으로 本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다.

36) 君火가 아니라 相火가 火氣를 대표하는 이유는 현상세계의 火이기 때문이다.

난다. 이때 커져버린 形은 아직 陽化작용이 일어나기 전으로 陽氣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濕氣를 더욱 성하게 하니 또다시 濕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少陽은 陽化가 막 시작되려는 상태인데 火氣의 성질과 결합되어 陽化하려는 힘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從本從標은 六氣을 쫓아서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三陰三陽의 象을 쫓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³⁷⁾. 즉, 六氣의 특성을 쫓는 동시에 현상세계의 외적변화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太陽과 少陰이 從本從標하는데, 太陽은 陽의 기운이 가장 밖으로 벌려진 것이며 少陰은 陰化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각각 陽化와 陰化의 큰 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太陽과 少陰은 陰陽의 極性を 유지해나가야 하므로 서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되는 陰陽의 성질을 내부에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太陽의 경우에 현상세계에서는 陽化가 끝까지 일어나 形을 채우고 있던 기운이 외부로 발산되어 버리거나 안으로 깊숙이 잠장되어 버리는 상태가 된다. 이때에는 陽氣의 發散으로 오히려 寒氣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모든 변화가 寒氣와 太陽을 상을 쫓아 두가지도 나타나게 된다. 少陰의 경우에도 熱氣가 강하게 나타나는 때인 동시에 陰形을 가장 왕성하게 불러나가며 틀을 잡아주는 단계이므로 변화가 두가지지를 모두 쫓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標와 本을 쫓지 않고 中氣를 쫓는다는 것은 標本의 관계보다는 標와 中의 표리관계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³⁸⁾. 陽明과 厥陰이 다스리는 경우

37) “從標本者 有標本之化”라 하였으니 변화에 있어서 標本으로 나누어지는 구별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38) “從中者 以中氣爲化也”라 하였으니 中氣의 象으로 그

에 여기에 해당한다. 陽明과 厥陰은 각각 陽化와 陰化의 과정 중에서 하나의 단계를 마치고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마디에 해당한다. 陽化의 경우에 陽이 커져서 극점에 도달한 상태가 전후를 나누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陽明이 여기에 해당하며³⁹⁾, 陰化의 경우에는 形이 자라다가 멈추어 다시 다음의 새로운 形을 키워나가는 때가 하나의 분기점으로 厥陰이 여기에 해당한다⁴⁰⁾. 이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고요한 시기로 標와 本을 쫓지 않고 中을 쫓게 된다. 그 이유는 標本은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중심 축이지만 中은 보조적으로 변화의 평형을 맞추며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陽明의 경우에는 그것을 조절하는 中氣인 太陰을 쫓아서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며 厥陰의 경우에도 中氣인 少陽의 상이 조금 나타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상으로 標·本·中의 변화 규율을 설명해보았으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통하여 그 규율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화의 양상을 대신한다는 뜻이다.

39) 陽明은 “兩陽合明”이라 하였으니 陽化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단계임을 말한 것이다.

40) 厥陰은 “兩陰交盡”이라 하였으니 形이 자라는 것을 마치고 위축되어 있다가 새로운 形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結論

『黃帝內經』運氣篇에 나오는 標·本·中의 개념에 관하여 運氣學의 전문학적 배경과 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六微旨大論〉에 나오는 標와 中은 運氣學의 전문학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각각 初氣와 中氣에 해당하며 이들은 客氣의 一步 중에서 전반과 후반으로 각각 약 三十日 동안의 기간을 지배하게 된다.

2. 標·本·中에서 本은 사물의 내적 원리인 五行에 근본하여 드러나는 六氣로서 주로 客氣에 해당한다. 標는 '標識'의 의미로서 六氣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외부로 드러난 것으로 만물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하여 그 象이 나타난다. 中은 六氣의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특성으로 標과 마찬가지로 本性의 일부가 외부의 변화로 드러난 것을 말한다.

3. 標와 本의 관계는 陰陽과 五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事物에 내재된 理의 세계와 그것이 외부로 표출된 氣의 세계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本은 비록 六氣로 나타나나 근본적으로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標는 그러한 五行의 속성이 三陰三陽의 象으로 외부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4. 標과 中의 관계는 事物의 陰陽 속성이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우주가 음양오행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陰運動과 陽運動의 특성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때에 標가 우선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며 中은 標에 이어서 비교적 약하게 드러난다. 標와 中은 陰陽의 성질이 서로 상반되므로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나 勝復의 관계처럼 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서로 보완해주는 면을 가지고 있다.

5. 標·本·中의 변화 규율에서 少陽과 太陰의 경우에는 근본이 되는 五行의 속성 즉 本을 쫓아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濕과 火가 현실 세계에서 形과 氣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太陽과 少陰의 경우에는 五行 속성인 本과 그것이 드러난 氣의 양태인 標를 쫓아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太陽과 少陰은 陽化와 陰化의 極性を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여 서로 상대적이면서 동시에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標와 本을 동시에 쫓는 것이다. 厥陰과 陽明의 경우에는 陽化와 陰化의 순환에서 모두 하나의 단계를 지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마디에 해당하므로 그 변화가 標本의 관계처럼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소강 상태로 나타나므로, 단지 中氣에 의하여 서로 조절되는 미약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參考文獻

1. 權依經 : 오운육기학 해설. 서울, 법인문화사, 1996
2. 김은하 : 國譯 類經圖翼 運氣篇. 서울, 一中社, 1992
3. 雷順群 : 內經多學科研究.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0
4. 方約中, 許可松 :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4
5. 宋点植 : 醫學輯要. 서울, 圖書出版曉林, 1991
6. 宋点植 : 醫學輯要. 서울, 효림출판사, 1991
7. 楊力 :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8. 王琦의 3인 :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9. 王琦의 4인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10. 王力 : 中國古代文化常識. 서울, 螢雪出版社, 1994
11. 王冰 : 黃帝內經素問. 서울, 일증사, 1993
12. 王洪圖의 :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13. 任應秋 : 運氣學說. 서울, 동문선, 1994
14. 程思德 : 素問注釋滙粹.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15. 周銘心, 王樹芬 : 中醫時間醫學. 서울, 一中社, 1992
16. 金基郁 : 運氣學說의 理論 및 運用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1996
17. 宋炳讚 : 三陰三陽의 運氣論의 理解. 경희대학교대학원, 1993
18. 尹暢烈 : 六氣의 標本中氣와 疾病發生의 機轉에 關한 研究. 제2회 지산국제동양의학심포지움 논문집, 1996
19. 李容範 :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1996

Abstract

A study of conception of pyo(標)·bon(本)·joong(中) in the part of woongihak(運氣學) in negeong(內經)

Baik you sang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The conception of pyo(標)·bon(本)·joong(中) in the part of woongihak(運氣學) of negeong(內經)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 that decides the relation between six gi(六氣) and samyum and samyang(三陰三陽) or between each other's of samyum and samyang itself, it says that the relation of pyo-ree(表裏). So this conception from the ancient times have been used to explain the theory of meridian(經絡) and organs(五臟六腑), and in other important field of oriental medicine - Sanghannon(傷寒論), it became basis of explanation of pathological principles in the system of six kyung(六經).

At first,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content of 《Somun(素問)》 in order to find the accurate and original meanings of pyo(標)·bon(本)·joong(中). And the meanings are studied by the way of expanding it's meaning with basic conceptions of woongihak(運氣學) and astronomy included in negeong(內經).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1. The contents of <Yukmijidaeron(六微旨大論)> - the 68th chapter of negeong(內經), concerning pyo(標) and joong(中) come under chogi(初氣) and joonggi(中氣) of the same chapter, after consideration of astronomical knowledge. And they become active during the period that last about 30days, a haft of one step(一步) of kaekgi(客氣)

2. Bon(本) as a kind of six gi(六氣) that is revealed from internal principle of something, that is to say Ohhaeng(五行), comes mainly under the kaekgi(客氣) of woongihak(運氣學). pyo(標) with the meaning of 'sign' is that the specific properties of six gi(六氣) are revealed to our sight, so we can feel that through the change of nature. Joong(中) is the other property hidden in the inside of six gi(六氣), that is a portion of original nature(本性) like the bon(本).

3. The relation of pyo(標) and bon(本) is like that between the principle hidden inside in all things(理) and it's expression into the real world(氣), also similar to that of yumyang(陰陽) and ohhaeng(五行). Therefore bon

(本), though it means one of the six gi(六氣), have the property of ohhaeng(五行) and pyo(標) is revealed with an appearance of samyum-samyang(三陰三陽)

4. pyo(標) and joong(中) are also the both sides of yum(陰) and yang(陽) that revealed under the change of yumyang-ohhaeng(陰陽五行) in the nature. For example, if the one is yang(陽), the other is yum(陰). In the process that the change of all things is revealed out, first the property of pyo(標) appears strongly and then that of joong(中) appears comparatively weakly. But, in spite of the inhibitive relation of yumyang(陰陽), pyo(標) and joong(中) promote each other.

5. Under the course of change, it happens according to the bon(本), the property of ohhaeng(五行), in the case of soyang(少陽) and taeyum(太陰), because the effect of moisture(濕) and fire(火) that makes hyung(形) and gi(氣) is very strong in the universe. In the case of taeyang(太陽) and soyum(少陰), it happens according to the bon(本) and pyo(標) because they have the polarity of water and fire(水火), at the same time, are not separated each other. In the case of yangmeong(陽明) and gualyum(厥陰), the change appears only according to the joong(中), but not strongly because the phase of yangmeong(陽明) and gualyum(厥陰) is a lull phase processing to the next one.